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6년 9월 소식

기획

김영란법에 대한 농어민의 호소

자조금 소식

2015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한우 이모저모

연재① 지방, 정말 독일까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큰 대한민국 농축산 조
농가 다 죽인다!
 김영란法 시행령에
농산물 상한선
04페지하라!



한우뉴스의 모든 것

매일마다 새롭고 다양한 한우뉴스를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만나세요

오늘의 뉴스보기

공지사항 | 입찰공고 | 뉴스정보 | 보도자료

한우뉴스의 모든 것 | 한우뉴스의 모든 것 | 한우뉴스의 모든 것

한우뉴스의 모든 것 | 한우뉴스의 모든 것 | 한우뉴스의 모든 것

한우뉴스의 모든 것 | 한우뉴스의 모든 것 | 한우뉴스의 모든 것

한우뉴스의 모든 것 | 한우뉴스의 모든 것 | 한우뉴스의 모든 것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6년 9월 소식

기획

04 김영란법에 대한 농어민의 호소

06 한우 가격 강세 전망, 변수는?

자조금 소식

08 2015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10 2015 한우자조금 성과분석

12 한우자조금·한우114 홈페이지 개편

13 3차 관리위원회의 개최

14 여름철 TV방송도 한우와 함께

15 추석맞이 한우고기 할인행사 외

한우 이모저모

16 전라북도 미경산한우 품질평가대회

17 책<지방의 역설>① 지방, 정말 독일까

18 컨설팅 연재⑥ 한우의 비육 사양관리

농장 탐방

20 강원 영월 덕포농장의 고찬규 대표

한우 시황

22 9월 한우 도매가격 전망

뉴스 클리핑

24 8월 한우 관련 이슈

포토 뉴스

26 송아지 제 동생 삼을래요

함께하는 한우자조금



〈한우자조금〉편집부는 한우농가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월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 9 통권 제131호

비매물

발행일 2016년 9월 1일 **발행인** 이근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커피아회관 2층 홍보마케팅부 **전화** 02-522-3608 **팩스** 02-522-4314

기획·편집·인쇄 하나로어드컴 (02-3443-800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농민의 외침,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어민들이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이 제외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민들의 요망사항

- ▶ 최우선: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할 것
- ▶ 차 선: 품목별 특성에 맞게 별도 기준을 설정할 것
- ▶ 차차선: 부득이하다면 시행시기를 연기할 것



농어민들이 '농축산물 제외'를 주장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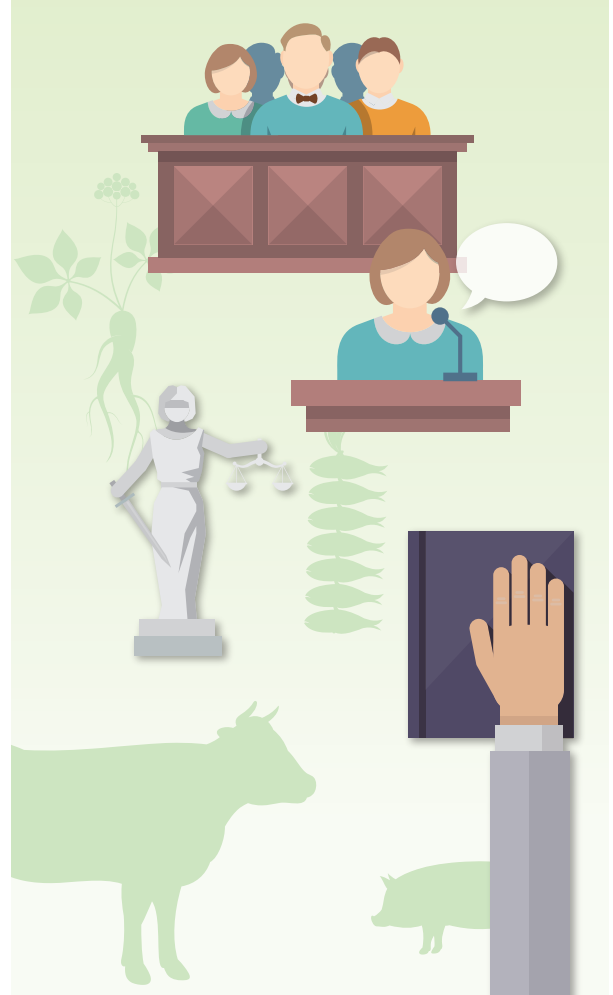
현재 백화점 내 한우선물세트의 93%가 10만 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만약 누군가 이 한우선물세트를 구입해 공직자, 언론인, 사립교원 등에게 선물한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된다. '선물'이 '뇌물'로 둔갑하게 된 상황.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를 비롯한 국내 농축수산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실제로 수입육업체의 주식이 상승하고,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한가위 선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등 곳곳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결국 수입 축산물만 권장하는 꼴이다.

우리가 지켜야할 우리 농축산물

한우와 인삼 등은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지정된 '우리나라만의' 상징물로, 국민과 국가 차원에서 보호 육성돼야 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직접 피해 예상액은 한우 1조 원, 인삼 3,700억 원, 굴비 1,100억 원 등 총 11조 원에 다다른다.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는 "음식, 선물 등의 관습 등은 풍습과 문화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으며, 서울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56.8%의 시민들이 김영란법에서 '농어민을 배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사례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실정

김영란법 제정 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참작해 가액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의 선물문화 가액은 극히 소액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은 농업을 대하는 태도부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또 선진국들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업을 특별 보호 육성해 온 것과 달리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 시행 시 농가 소득 감소, 산업 위축 등 직접피해를 입게 된다.



농축수산물 제외해도 법의 목적 달성할 수 있어

농어민들은 '청렴한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법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애꿎은 농축수산물만 죽일 수 있다. 취약산업이자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을 배려하는 것은 여론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해도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2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 첫 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에 대해 논의했지만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안 유지를 주장해 기존안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 

한우고기 가격 상승 전망, 변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고기 가격이 올해 3분기에 19,000원을 넘어서고, 2017년 3-4분기에는 22,000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과 한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저항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해에 비해 도축두수가 2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육 가격은 18,0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이러한 변수들이 크게 작용할 경우 추석 이후 18,000원대로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한우 가격을 전망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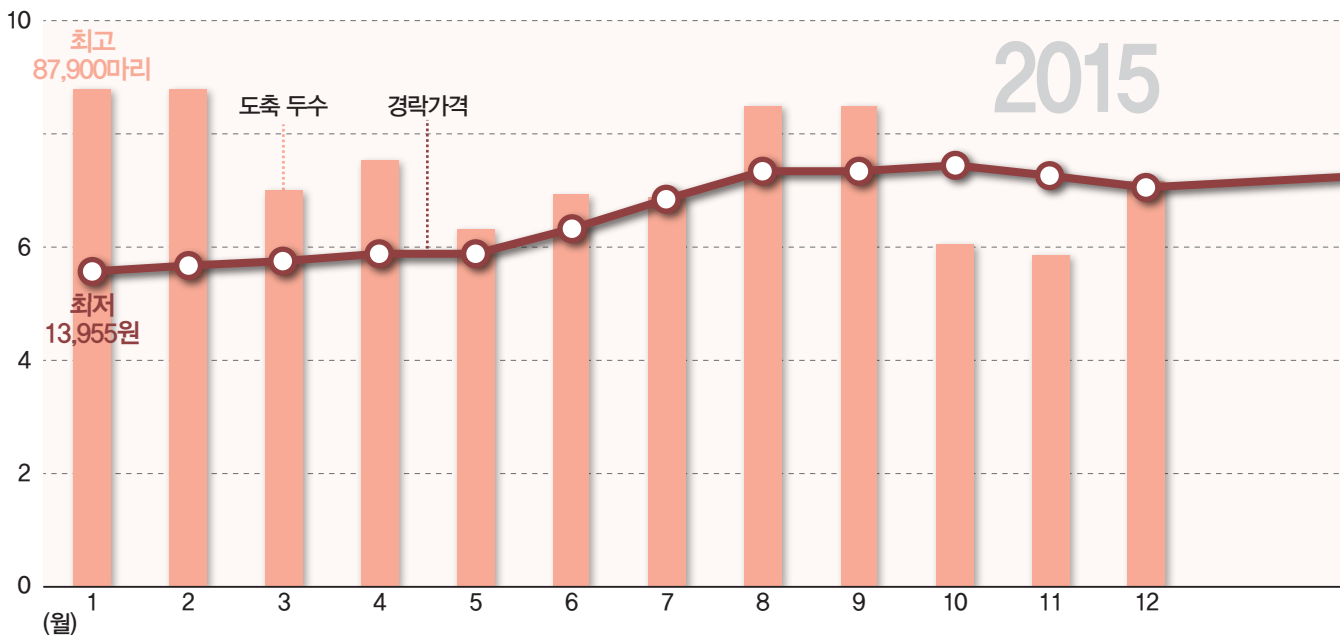
한우 도축두수와 한우 지육도매 가격 동향

2015년과 2016년의 도축 마릿수와 지육가격의 변화를 비교해 보자. 2015년 1~2월, 17만 5천 7백여 두를 도축했을 때 지육 kg당 평균가격이 13,955~14,234원이었다가 5월에 6만 3천 1백두를 도축했을 때 14,719원으로 상승했다. 7월에는 6만 8천 6백두를 도축했을 때 17,081원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8~9월 16만 9천 8백두를 도축했을 때는 18,347~18,340원으로 1천 원 이상 값이 상승했다. 11월에는 5만 8천 5백두를 도축했을 때 18,145원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2016년 1~2월 14만 6천 5백여 두를 도축해 전년 동기 대비 2만 9천여 두가 감소함에 따라 18,550~17,743원으로 강세를 나타냈으며, 5월 5만 5천여 두를 도축해 도축두수 감소로 18,458원의 강세를 유지했다. 7월에는 4만 9천 7백두를 도축해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여 두가 감소해 18,780원의 강세를 유지했으며, 8월에는 약 6만 8천여 두를 도축해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여 두가 감소해 18,896원의

도축두수와 가격 전망

(단위 : 만두)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도축두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전망치 가격보다는 다소 상승값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가격저항으로 한우 소비층의 일부가 수입육 등으로 한우 구매를 대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한우 송아지 가격 고점에서 하락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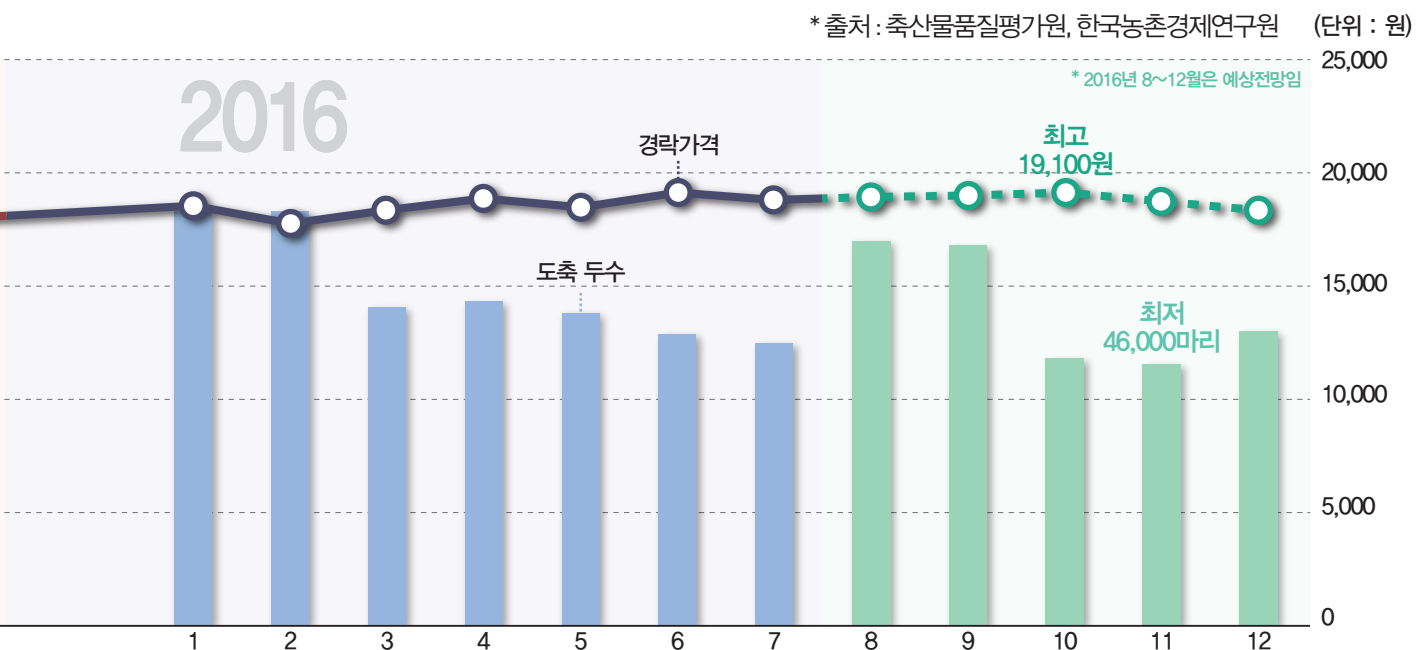
한우의 송아지값은 지난 6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수송아지의 경우 평균가격이 지난 6월에 400만 원을 넘었다가 8월에는 390만 원으로 하락했으며, 암송아지의 경우 6월에 325만 원을 기록했다가 8월에는 307만 원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송아지값이 하락한 것은 송아지 출하량이 늘어났을뿐만 아니라, 2년 후 한우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우 전문점과 한우 소비자의 변화

한우 전문점 중 일부는 한우고기 가격이 높은 데 비해 소비자가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우고기 대신 수입육이나 돼지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도 “경제는 어렵는데 고기 가격이 올라 한우고기를 먹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 한우 가격 하락, 전망보다 빨리 올 수도

2020년까지는 사육두수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한우 소비량을 고려할 때 한우가격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한우가격이 전망보다 더 빨리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우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으로 한우소비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우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 시기가 빨라지고 증가폭도 커지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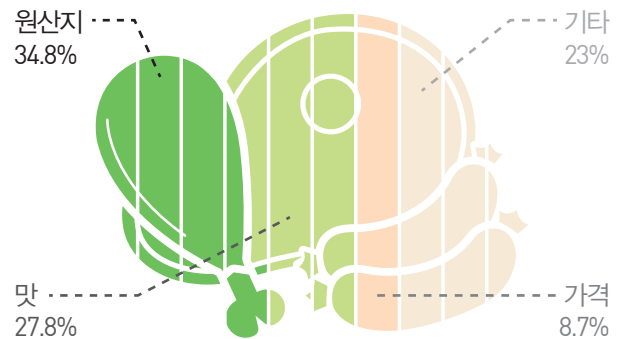
2015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한우자조금이 '2015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다.
한우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 상황, 소비 상황을 조사해 한우 유통·소비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소비자 육류 구매 기준은 원산지, 맛, 가격

육류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 1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원산지가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맛(27.8%), 가격(8.7%)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2순위, 3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연이어 가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가격 역시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수입 육류가 늘어나며 원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한우 가격이 상승한 만큼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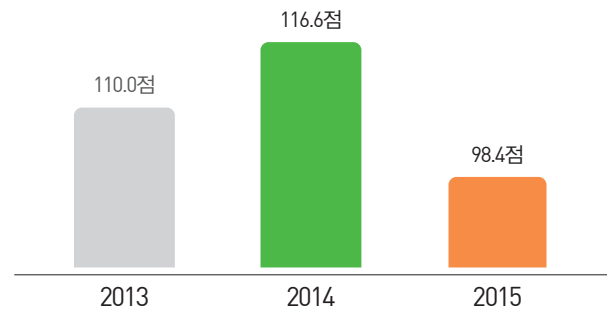
육류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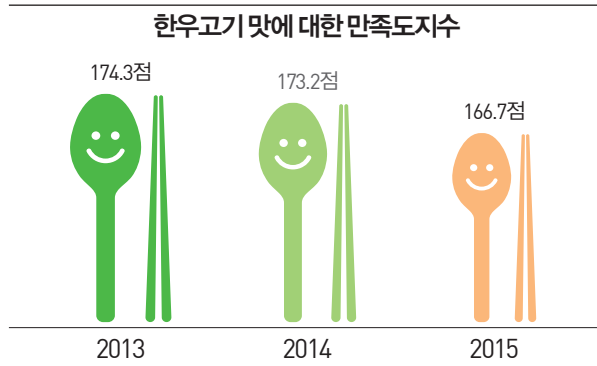


‘한우고기 소비하겠다’는 소비자, 전년 대비 감소세

원산지별 소비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한우고기를 소비할 것이라고 답한 외식 소비자는 98.4로, 2014년도 116.6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외식 소비의향은 94에서 111.3으로 증가했으며, 기타국 소고기도 91.8에서 110.8로 증가했다. 2015년 한우고기 소비의향 감소 원인은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한우고기 소비의향지수(외식 소비자 응답)





한우고기, 맛에 대한 만족도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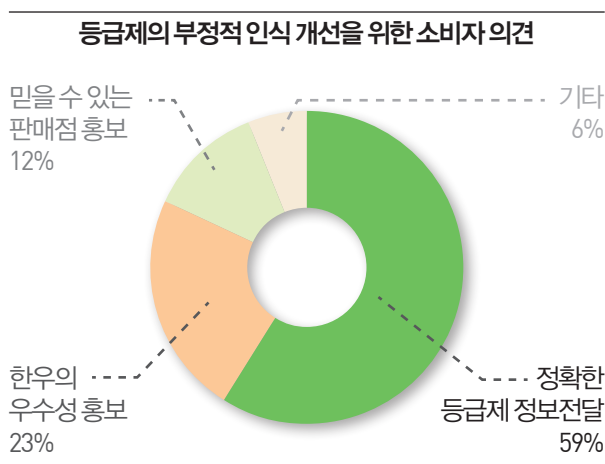
맛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한우고기(166.7)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들이 한우고기 다음으로 선호하는 고기는 육우(118.2), 호주산(114), 미국산(86.6), 기타국 소고기(71.3) 순서였다. 2015년 한우고기 맛에 대한 만족도 감소는 한우 가격 상승이 가져온 결과라고 분석된다.

한우고기는 영양가에 대한 만족도지수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육우, 호주산, 미국산이 순위를 이었다.



한우고기, 안전성 신뢰도 가장 높아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지수 역시 한우고기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들이 한우고기 다음으로 안전성에서 선호하는 고기는 육우, 호주산, 미국산, 기타국 소고기 순서였다. 반면,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반면 수입 소고기의 가격 만족도지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언론보도, 소비자 인식에 영향

소비자들은 언론 보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5.8%의 소비자가 마블링과 등급제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접했으며, 이들의 85%가 보도 후 등급제와 마블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부정적이던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비율은 20%, 긍정적이던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비율은 21%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등급제 정보전달(59%)과 한우의 우수성 홍보(23%) 등의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

2015 한우자조금 성과분석

한우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량 증대 기여도를 파악하며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농가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15 한우자조금 성과분석’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도출하며 향후 효과적인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소비촉진 성과지수 ‘한우 나눔 행사’ 가장 높아

한우자조금 소비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의 종합 점수는 62.7로 조사됐다. 농가들은 한우 나눔 행사(71.8)를 가장 성과가 있었던 사업으로 꼽았으며, 한우 유통 투명화 정보 제공(50.4)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한우자조금은 소비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 한우 나눔 행사, 급식을 통한 한우 맛 체험 사업을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자조금 소식지

한우자조금 소식지 통해 이루어진 정보제공

한우자조금 농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만족도는 61.4로 나타났다. 성과를 묻는 질문에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발행(73.2)의 성과지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우 농가 교육 및 컨설팅(65.4), 한우 경진 대회 지원(61.6) 등이 순위를 차지했다.

소비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발행, 한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한우 경진 대회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한우자조금 사업, 소비 홍보 앞장서야

83.1%의 농가들이 한우자조금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는 TV/라디오 광고 등 소비 홍보 부문이 가장 높았으며, 수급 안정,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농가들이 생각하는 '한우자조금 사업의 우선순위'는 소비 홍보 사업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18.2%), 수급 안정 사업(12.0%) 등이 순위를 차지했다.

10명 중 9명의 농가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행사 인지

한우자조금 유통구조 개선사업 중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대한 인지 비율이 90.0%로 가장 높았다. 한우 나눔 행사(87.2%), 급식을 통한 한우 맛 체험(84.8%) 등이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로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가 24.4%로 가장 높았으며, 급식을 통한 한우 맛 체험(23.8%), 한우 유통 투명화 정보 제공(16.8%) 등이 뒤를 이었다.

소식지와 해외 연수, 경진 대회 등 다양한 교육

농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중 농가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한우자조금 소식지(92.0%)였다. 한우 농가 해외 연수와 한우 경진 대회 지원(81.6%)이 순위를 이었다. 참여 경험은 한우자조금 소식지가 75.6%로 가장 많았으며, 한우 농가 교육 및 컨설팅(54.2%)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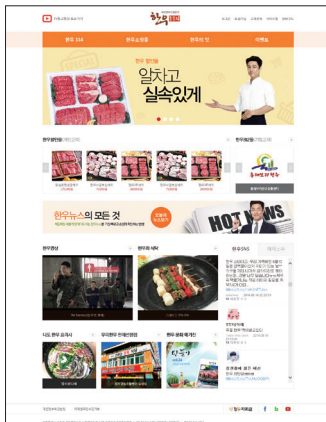
사업의 도움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역시 한우자조금 소식지 발행 사업이 6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우 농가 교육 및 컨설팅(66.9점), 한우 경진대회 지원(63.7점)이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농가들이 생각하는 정보제공 사업 우선순위는 한우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이 29.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한우 농가 홍보 및 계도 광고(20.8%), 한우 경진 대회 지원(11.2%) 등이 순위에 올랐다. 🐮





한우자조금· 한우114 홈페이지 개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생산자 정보 사이트 한우자조금(www.hanwooboard.or.kr) 홈페이지와 소비자 정보 사이트 한우114(www.hanwoo114.co.kr) 홈페이지를 지난 8월 말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개편한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한우자조금 활동 및 운영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정보마당', '알림·홍보', '운영현황', '위원회 소개' 메뉴 구성을 최적화했다. 특히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한우 뉴스정보를 통해 한우산업 동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메인화면은 주요활동 이미지 위주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한우114 홈페이지는 한우고기 대량거래 유도를 위한 '한우 Biz몰' 기능 구현 및 '나도 한우요리사', '한우의 식탁', '한우SNS'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참여형 메뉴를 재구성했다.

새 단장한 한우자조금 및 한우114 홈페이지는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와 한층 가깝게 소통하는 창구뿐만 아니라 한우114 할인몰 및 Biz몰 운영을 통해 한우 직거래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3차 관리위원회 개최

한우자조금은 한우 소비 감소를 막기 위해 한우 소비 홍보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한우자조금은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리위원회의를 열어 한우 소비 촉진행사와 시·군 지역 소비 홍보행사 등에 예비비를 적용해 10억여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 한우 소비 촉진행사에 7억 6천만 원을 증액해 4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시·군 지역 소비 홍보행사는 8천 4백만 원을 증액해 9억 9천 4백여만 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또한 한우 수출지원(홍콩 한우 페스티벌)에 7천만 원, 한우농가 홍보 및 계도 광고에 7천만 원, 한우농가 해외연수 3천 1백만 원, 박람회(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추가 참가)에 2천 1백만 원, 정보 문자 발송에 1천 5백만 원 등이 증액됐다.

한편,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최근 이슈가 되는 김영란법, 소값 고공 행진에 따른 소비 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통부(부장 임봉재)를 신설하여 소값 안정 및 할인행사와 유통 투명화, 수출 업무 지원,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한우 직거래 장터, 자조금 소식지 등의 업무를 담당 하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여름철 TV방송도 한우와 함께

지난 8월에는 한우고기 섭취를 통해 기운을 찾는 방법들이 소개됐다.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한우고기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도축일이 언제인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됐다.



아미노산과 올레인산 함유된 한우

8월 4일, SBS <생활경제>에서는 한우 섭취를 통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이 소개됐다. 한우가 수입육에 비해 아미노산과 올레인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라는 사실과,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우 안심 참깨죽, 갯년기 여성의 우울증과 중장년을 위한 한우 치마살 부추잡채, 노년 기력회복에 좋은 한우 갈비탕 등 연령별로 좋은 한우고기 음식 조리법이 전해졌다.

내가 먹는 고기, 도축일 알아보는 '축산물 이력제'

8월 23일 방영된 KBS <아침이 좋다>에서도 한우를 이용한 '여름 보양식 요리법'이 전해졌다. 방송에서는 포장육 가격표 아래 표기된 이력번호를 '축산물 이력제' 애플리케이션에 조회하면 한우고기가 언제 도축됐는지, 누가 키웠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정보도 소개됐다.

기운 나는 데는 한우가 최고

8월 23일 KBS 드라마 <여자의 비밀>에서는 등장인물이 '우리 한우 인증 마크'가 붙은 한우 판매점에서 한우를 구매하는 장면이 전해졌다. '기운 나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한우',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돈다' 등의 대화가 이어졌다. 



추석맞이 한우고기 할인행사 (8.31~9.15)

시중가격의 10~40% 할인



한우자조금은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업체와 연계한 한우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한다.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이번 할인 판매행사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상품목은 2등급 이상 한우 등심, 안심, 채끝, 불고기(우둔, 설도, 앞다리), 국거리(목심, 사태), 정육, 갈비 및 선물 세트이며, 시중가격의 약 10~40%를 할인 판매한다. 이 행사는 농협 계통 매장(258개소), 대형유통점(1,365개소), 영농조합법인(15개소), 한우114몰(9개소) 등 약 1,647여 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청계광장 한우직거래장터 (9.6~7)



지난 8월 23일,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추석맞이 한우직거래장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참여업체와 홍보대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9월 6~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에는 대전세종충남한우조합과 의성서부한우회 마늘소영농조합 등 2개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직거래장터가 사전에 충분히 홍보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V 자막 광고와 신문광고, 온라인 광고, 언론홍보 등에 대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

제5회 전라북도 미경산한우 품질평가대회

‘미경산한우’는 한 번도 송아지를 낳지 않은 암소로, 고급육 생산을 통해 한우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육됐다. 이번 미경산한우 품질평가대회에는 총 31마리의 미경산한우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1 올해 최우수 미경산한우는 33,333원/kg에 낙찰됐다



2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석용 농가



제5회 미경산한우 품질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석용 농가의 미경산암소가 33,333원/kg으로 높은 경락 가격에 낙찰됐다.

지난 8월 4일, 오후로 5회를 맞은 전북 미경산한우 품질평가대회가 미경산한우 사육농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축림에서 개최됐다. 전북미경산한우협동조합(이사장 김영만) 주최로 개최된 이번 품평회에는 전라북도 내 13개 농가에서 31두를 출품했으며, 등급 판정 결과는 육질 1++등급 9두(29.0%), 1+등급 8두(25.8%)로 1+등급 이상 출현율이 54.8%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상반기 전국 평균 한우 암소 1+등급 이상 출현율 20.7% 대비 34.1% 높은 것이며, 전국 평균 한우 거세 1+등급 이상 출현율 54.7%보다도 육질등급이 높다. 특히 미경산암소의 경우 암소 특유의 깊은 맛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이날 영예의 최우수상은 양석용 농가(장수군)에게 돌아갔다. 최우수 미경산한우의 성적은 B1++등급, 근내지방도 9, 등지방두께 16mm, 배최장근단면적 102cm², 도체중 지육 330kg으로, 경락가격은 33,333원/kg이다. 이 미경산한우는 1천만 원이 넘는 10,999,890원에 낙찰됐다.

우수상은 전북한우협동조합(김제시), 장려상은 구생회(완주군)농가, 채귀석(임실군)농가가 수상했다. 🏆

책<지방의 역설> 연재 ① 지방 섭취, 정말 ‘독’일까

예부터 고기의 마블링은 ‘고기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2015 한우자조금 소비자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좋아하면서도, 실제 구매에서는 마블링이 ‘적당한’ 고기를 구매했다. 마블링이 많은 부위는 ‘가격이 비싸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사실일까? 우리는 언제부터 지방이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1906년, 하버드에서 수학한 인류학자 스테판슨은 캐나다 극지방에서 이누이트의 생활방식을 체험해 보기로 했다. 1년 내내 거의 육류와 생선만 먹는 그들의 식습관 역시 그대로 따라 했다. 이누이트는 6~9개월 동안 순록만 먹었으며, 그 뒤 수개월 동안은 연어만 먹고, 봄 한 달 동안은 달걀만 먹었다...극지방에서 돌아온 스테판슨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증명하기 위해 과감한 실험을 고안해냈다. 1년 내내 물과 육류만 먹겠다고 선언했다...실험을 진행한 1년 동안 스테판슨은 단 한 차례 아팠다. 지방이 없는 살코기 부위만 먹었을 때다.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는 무척 건강했다. 조리된 육류에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그들은 괴혈병을 앓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스테판슨은 실험이 끝난 뒤에도 평생토록 이러한 식단을 이어갔다.

예일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니나 타이솔스는 책<지방의 역설>을 통해 지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는다. 지방의 진실을 찾기 위해 9년간 탐구했다는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특히 포화지방에 관한 내용은 거의 전부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한다.

의사에서 인류학자로 전향한 허들리치카의 연구도 위의 실험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1898년부터 1905년까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관찰했다. 원주민들은 주로 육류, 그중에서도 물소 고기를 주로 먹었는데, 그들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기도 했다. 그는 2,000명이 넘는 원주민들의 건강을 검사했지만 아무에게서도 만성 질환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암과 종양은 물론 동맥 경화증도 전혀 없었다. 그들의 건강과 장수가 육류 덕분은 아닐지라도, 육식 위주의 식단이 인간의 건강을 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동물성 식품 대신 과일, 채소 등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라고 권고받아 왔다. 그렇다면 지방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으로 매달 책<지방의 역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발행: <지방의 역설> 19p

지방의 역설	
Nutrition Facts	
Amount Per Serving	
Calories 300	Calories from Fat 110
% Daily Value*	% Daily Value*
Total Fat 10g	20%
Sodium 10g	20%
Total Carbohydrate 10g	10%
Sugars 10g	20%
Protein 10g	20%
Vitamin A 10%	Vitamin C 10%
Calcium 10%	Iron 10%

한우컨설팅 연재 ⑥

한우의 비육 사양관리

한우의 발육은 뇌부터 뼈, 근육, 지방의 순으로 진행된다. 근육과 골격,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면서 개체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데, 소의 성장은 누워있는 S자 곡선의 경향을 보인다. 수정 후 출생까지는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출생 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성장이 완료되면 다시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체조직의 변화

생체중은 생후 4개월령부터 21개월령까지 아주 왕성하게 증가하고, 살코기는 생후 3개월령부터 18개월령까지, 지방은 생후 12개월령부터 24개월령까지, 뼈는 태아기부터 11개월령까지 발육이 왕성하며 소화기관은 0.6개월령부터 12개월령까지 대부분 발육이 완료된다.



초음파 육질 진단

비육우의 경우 비육전기부터 초음파 육질진단을 통해 근내지방도와 등지방두께 등을 살펴보고 출하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암소 개량 시 초음파를 이용해 근내지방도와 배최장근단면적 등 암소의 유전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



성장단계별 영양관리

비육 단계를 최소 3단계 이상으로 구분해 에너지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 육성기에는 68~70%, 비육전기에는 72%, 비육중기에는 72~73%, 비육후기에는 73~74% 정도다.



수소의 거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성장을 촉진하지만 지방 합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세시킬 경우 육질 향상에 효과적이지만 일당증체량은 0.93kg인 비거세우의 경우, 0.78kg 정도가 된다.

거세 시기

3~7개월령까지는 일당증체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에 거세를 하면 육질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으나 너무 일찍 실시하면 요로계에 요석이 생성돼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요결석'이 나타날 수 있어 최근에는 다소 늦추는 편이다. 12개월령에 실시할 경우 일당증체량에는 유리하지만 육질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거세 방법

외과적 방법 즉 음낭을 절개해 고환을 떼어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고무링 법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송아지에게 고통을 오래 주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무혈 거세법은 거세가 제대로 안 되어 한쪽 고환이 기능을 발휘하거나, 정소가 음낭 내로 하강하지 않고 인근 피부 사이에 위치할 경우 거세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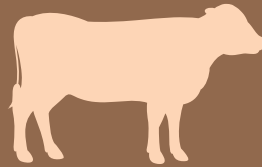
▶ 육성기



개월수	4~12개월
일당증체량	0.7~0.8kg
농후사료	체중의 1.5~1.6%

육성기는 생후 12개월령까지로, 소화기관이나 내장, 뼈, 근육 등의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다. 이때는 단백질이나 에너지, 비타민, 광물질 등이 균형있게 함유된 농후사료를 제한 급여해 주고, 제1위의 발육을 촉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농후사료는 체중의 1.5~1.6% 수준에서 제한 급여하고 일당증체량은 0.7~0.8kg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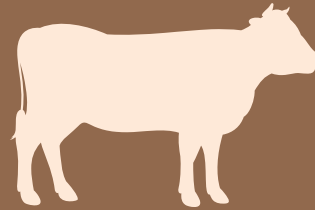
▶ 비육전기



개월수	12~17개월
일당증체량	0.8~1.0kg
농후사료	체중의 1.6~1.9%

일당증체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농후사료를 체중의 1.6~1.9% 수준으로 늘려주면서 제한 급여해 일당증체량을 0.8~1kg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는 건초를 볏짚으로 교체하면서 못 먹는 지방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근내지방도 향상을 위해서는 비타민C를 사료에 첨가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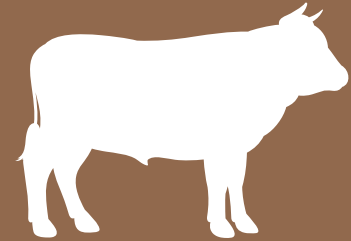
▶ 비육중기



개월수	17~21개월
일당증체량	1.0kg 이상
농후사료	체중의 1.7~1.9%

비육중기는 등심단면적의 증가와 근내지방의 축적이 왕성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당증체량도 많은 시기다. 점진적으로 농후사료 섭취량을 증가시켜 주되 조사료의 섭취량은 감소시켜 줘야 한다. 과도한 농후사료는 피하지방을 두껍게 만드므로 체중의 1.7~1.9%를 급여하는 것이 좋다.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식물성 보호지방산과 제한아미노산(라이신, 메티오닌)을 급여하면 상호작용에 의해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비육후기



개월수	18~29개월
일당증체량	0.6~0.8kg
농후사료	섭취량을 최대로 늘림

조사료는 최소한의 양으로 줄이고 농후사료 섭취량을 최대한 늘려 주는 것이 몸무게를 늘리고 육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때 육질 개선을 위해 보리를 급여해 주면 육질이 향상되고 지방색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청초를 급여하면 지방색이 황색으로 변해 육질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기셀레늄을 급여해도 육질등급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사육, 기본에 충실할 뿐이죠 강원 영월 덕포농장의 고찬규 대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한우사육을 선택하게 됐어요. 1996년부터 20여 년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소재 덕포농장에서 한우 140여 두를 일관사육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한우사육 선택

고찬규 대표는 젊었을 때 설비일을 했다. 직원 관리가 어려워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한우를 사육하게 됐다. 현재 운영 중인 목장을 1996년에 매입하면서 한우 어미소와 송아지 등 16두도 일괄 4천만 원에 함께 인수했다. 2000년도에는 소값이 폭락했으나 이때 오히려 송아지를 싸게 구입해 사육규모를 늘리는 기회로 삼았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

기본에 충실하면 좋은 사육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고찬규 대표의 생각이다. 암소의 경우 육질 개량을 위해 정액을 잘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송아지는 3개월령에 이유를 시키고 육성기에는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한다.





▲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 예정인 676번 소

우사 바닥은 질척거리지 않도록 1개월에 한 번 톱밥을 새로 깔아준다. 먹이통은 수시로, 물통은 1주일에 한 번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 기본적인 백신은 모두 접종해주고 봄과 가을에는 구충을 실시해 준다. 거세는 6~8개월령에 실시하고 있다.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번식우 개량은 10년 전부터 시작

고찬규 대표는 10년 전부터 암소의 능력이 낮은 순서대로 비육시켜 출하하는 등 선발을 통해 개량을 해왔다. 정액 선택 시에도 암소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정액을 선택해 개량했다. 덕분에 출하 성적이 꽤 좋다. 2등급 이하는 거의 없고 1등급도 10% 이하로 낮아졌다. 평균 출하 체중은 지육 460kg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육성기 양질 조사료 충분히 급여

송아지부터 육성기에는 건초를 충분히 급여해 제1위가 충분히 발달하도록 하고, 비육전기부터는 짚 종류의 조사료를 급여해 준다. 육성기때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먹여야 골격이 커지고 소들이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비육기에는 근내지방이 잘 축적돼 육성기 사육이 아주 중요하다. 고찬규 대표는 조사료와 농후사료, 블록 이외의 첨가제는 급여하지 않고 있다.

한우 거세비육우 출하 성적

10여 년 전부터는 거세비육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거세우 31두

를 출하해 1++등급 10두, 1+등급 11두, 1등급 10두의 성적을 받았다. 2015년에는 거세우 22두를 출하했고 1++등급 8두, 1+등급 10두, 1등급 4두의 성적을 받으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80%로 향상됐다. 2016년 현재까지 거세우 20두를 출하해 1++등급 10두, 1+등급 13두로, 아직까지는 1+등급 이상 출현율 100%를 나타내고 있다.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좋은 성적 기대

2013년에 처음 참가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육량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도 대회 출품을 위해 세 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 중 676번 소가 육질등급과 배체장 근단면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생시체중이 950kg이기 때문에 대회 출품쯤에는 1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육질등급과 배체장근단면적뿐만 아니라 등지방두께까지 얇게 나와 준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축산관측

추석 이후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8,000원 이하로 하락할 수도

사육 전망

- 12월 한우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252만 마리로 전망
- 9월 한우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보다 감소한 263만 마리, 12월 한우 사육두수는 전년 동월 256만 마리보다 1.6% 감소한 252만 마리로 전망

공급 전망

- 8~9월 소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도축두수는 사육두수 감소로 1~7월 전년보다 20.8% 감소한 41만 5천 마리, 8월(1~22일)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5% 감소한 4만 1천 573마리
- 국내 가격 강세로 1~7월 소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3.5% 증가한 19만 3천톤

가격 전망

- 9월 중순 이후 한우 도매가격 수요가 변수
- 한우 도축 감소와 추석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9월 중순까지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9월(18,745원)보다 강세인 19,000~20,000원으로 전망. 하지만 김영란법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추석 중순 이후 18,000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 산지 우시장 송아지 가격은 9~11월 수송아지 평균 380~400만 원(6~7개월령) 전망

- 청탁금지법 등 한우고기 수요 감소 정도가 가격의 변수
- 수입 소고기, 국내 소고기 시장 점유율 확대 가속화



* 자료제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월 한우가격 및 출하동향]

* 8월 23일 기준

구분		평년 (’11~’15)	2015년		2016년		대비(%)		
			7월(A)	8월(B)	7월(C)	8월(D)	C/A	D/B	
도축두수(두)		882,436	68,671	47,804	49,717	46,559	△23.6	△2.6	
경매두수(두)		435,604	39,030	26,020	27,143	25,685	△23.7	△1.3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3,406	17,134	18,370	18,843	18,779	10.2	2.2	
	거세우	14,569	18,271	19,146	20,162	19,834	10.6	3.6	
	비거세우	10,624	13,063	14,298	15,481	15,629	19.1	9.3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 원/두)	암소	3,910	5,121	5,524	5,986	5,885	17.6	6.5	
	송 아 지	암	1,511	2,640	2,631	3,247	3,038	23.6	15.5
		수	2,045	3,149	3,199	3,987	3,908	27.3	22.2
불고기(1등급/kg)		32,690	35,360	36,158	46,340	46,451	31.0	28.5	
등심(1등급/kg)		61,957	69,730	71,627	78,150	78,571	12.3	9.7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 전국경락가격 :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8월 한우농가 소득 추정]

* 8월 23일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 원/600kg)	경영비(B) (천 원/600kg)	소득(A-B) (천 원/600kg)
1++	22,187	7,974	4,848	3,126
1+	20,101	7,224		2,376
1	19,401	6,973		2,125
2	17,331	6,229		1,381
3	14,070	5,057		209

* 경영비 : 2015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천 원/600kg, 통계청)

* 한우거세 도매가격 기준



* 일일 한우가격동향은 「한우키우기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방법 **한우키우기**를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아이폰 기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책소식

- 구제역 백신, 색깔로 구분한다
8월 1일 농업정보신문
- ‘김영란법’ 피해 막자…
TF 구성에 ‘김영란세트’ 등장
8월 3일 PBC뉴스
- 구제역·AI 방역관리 대책 추진
8월 9일 정책브리핑
- 어미소 없는 6~12개월 한·육우,
혈청검사 결과 음성이면 판매 허용
8월 12일 한국농어민신문
- 축산농가 국경 검역,
직접 요청해도 검역 대상서 ‘누락’
8월 19일 한국농정
- 추석 한우 할인 판매에 자조금 활용 ‘이견’
8월 22일 농민신문
- [전문가의 눈-환엽]
‘지방(脂肪)’ 그 오랜 누명을 벗는다
8월 24일 농민신문

한우정보

- 송아지 설사엔 ‘벌침’이 명약
8월 2일 한겨레
- 21개월령 생체중 880kg, ‘수퍼 한우’의 비결은?
8월 2일 농축유통신문
- 40~60대 주부, “쇠고기 가격보다 원산지 중요”
8월 4일 농축유통신문
- ‘전북 미경산 한우 품평회’ 최우수상 양석용씨
8월 8일 농민신문
- 농식품부, ‘1인 미디어’로 판매·홍보 눈길
8월 11일 전업농신문
- 네이버 밴드 ‘한우기술공감’
2차 컨설팅 교육 실시
8월 12일 축산신문
- ‘우리한우 판매점’ 35곳 신규 선정…
전국에 총 400여 개소
8월 16일 한국농어민신문
- “한우 비육우 사육기간 30개월령이 가장 적합”
8월 29일 강원도민일보



지역소식

- ‘폭염에 가축도 비상’…
경남도 축산농가 행정력 집중
8월 2일 노컷뉴스
- 해남군, 우량한우 번식기반 구축 나서
8월 2일 아시아경제
- 제주도, 우량한우 개량 추진…고품질 한우 생산 기대
8월 2일 쿠팡뉴스
- 한우의 고장 흥성 ‘한우뺑’ 등장 눈길
8월 3일 강원도민일보
- 임실군 ‘한우배내기사업’ 업무 협약
8월 3일 포커스뉴스
- 고성군 한우, 명품 한우로 육성…
‘으뜸한우’ 인증서 수여식
8월 4일 포커스뉴스
- 인제군, 농업인대학 ‘한우 특별반’ 운영
8월 7일 아시아투데이
- 경기 식육 판매업소 ‘가짜 한우’는 0%
8월 9일 KBS뉴스
- 직접 맛보고, 만들어보고…
경기도, 소비자 안전축산물 투어
8월 10일 수원일보
- 경북한우 품평회
‘최우수 한우’ 1,208만 8천 원에 팔려
8월 13일 매일신문
- 김영란법 직격탄
청주우시장 가보니 ‘월 거래 8분의 1로’
8월 14일 매일경제
- 흥성한우 이달부터 거래 증명 일원화
8월 16일 한국농어민신문
- 남원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방지 대책회의
8월 19일 뉴스메이커
- 보령에 한우 경매시장 들어선다
8월 25일 충남일보
- 민간요법 쓰인 약돌,
한우에도 생리작용… 문경약돌한우
8월 26일 매일신문



송아지 제 동생 삼을래요

방금 태어난 송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 하고 있는 하울이. 서울에 사는 9살 하울이는 외할아버지댁에서 만난 새 생명이 신기하기만 하다. 눈을 깜빡이는 송아지가 귀여운지 연신 송아지를 쓰다듬으며 감탄 중이다. 🐮

* 재미있고, 뽀짝하고, 놀라운 소의 사진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소식지 이벤트'에 사진과 사연, 농장 주소를 남겨 주세요. 채택된 사진과 사연을 포토 뉴스에 실어드립니다.

함께하는 한우자조금

한우자조금위원회는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한우 산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소식지 <한우자조금>을 통해 한우농가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X 퀴즈

0·X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한우자조금에서 마련한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함께 담아주세요.

Q1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추석 한우할인판매행사'에서는 2등급 이상의 한우 등심, 안심, 채끝, 불고기, 국거리, 정육, 갈비, 선물세트 등을 구입할 수 있다.

Q2



콜라나 맥주 등 탄산이 있는 음료를 마신 후에는 3분 내로 양치하는 것이 치아에 좋다.

Q3



8월 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개편한 홈페이지는 생산자 정보 사이트 한우자조금과 소비자 정보 사이트 한우114다.

※ 응모하시는 분의 성함, 주소,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8월호 낱말퀴즈 사은품 당첨자

김유미 [8254] 이은희 [7263]
김병은 [0917] 석재혁 [2736]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관심 감사합니다.

생	산	성	향	상	교	육
한	우	알	림	공	연	
시						
장			채	끝	살	
					치	
					살	



QR코드로 모바일을 사용해
간단히 접속하세요!

애독자 퀴즈의 정답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http://www.hanwooboard.or.kr>) 내 소식지 이벤트 코너 혹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어 접속하신 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합니다.



농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흘린 땀을
하늘 닿을 듯
지른 외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